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제 1 독서 : 창세 14, 18-20
 제 2 독서 : 1 고린 11, 23-26
 복 음 : 루가 9, 11b-17

순정이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1 고린 11, 24).

강론

소리

“나는 네 밥”

이 사 정 신부 / 진안 천주교회

“진지 잡수셨습니까?” “재는 내 밥이야!”
 우리 식생활에서 항상 먹는 주식이 밥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말도 참 다양합니다. “진지 드셨습니까?”라는 말은 별일없이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이고 후자는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은어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의미에 대해 감사함과 겸손을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성서 주석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빵은 당시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던 보리빵이라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날과 같은 우리의 처지에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기보다는 생명의 밥이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밥은 우리 식생활을 대표하고 생활 자체를 표현합니다. ‘또 밥은 복의 근원으로 생각합니다. 밥을 버리는 것은 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밥을 버리면 큰 벌을 받고,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정중하게 부드럽게 먹어야 하며, 헤쳐가며 먹는다든지, 속으로 파먹는다든지 지저분하게 먹으면 복이 달아난다고 합니다. 이 복은 힘입니다. 신체의 힘이고 부의 힘이고 만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과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의 신비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겸손의 덕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겸손입니다. 식탁에서도 밥은 가장 겸손합니다. 어느 반찬처럼 두드러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밥은 그 자체로써 별맛을 내지 않지만 다양한 양념으로 요리된 반찬과 더불어 그 독특한 맛을 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빵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체와 성혈이 이루어지는 매일의 성체성사를 통해서 지극한 겸손으로 우리의 밥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체성사의 가치는 우리가 성체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이웃의 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네 밥’이라는 마음 가짐이 주님이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뜻입니다. 상대방을 밥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밥이 되는 것입니다. 성체의 삶을 우리 생활에 실용시키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나는 당신의 밥입니다’라는 심정으로 이웃을 대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로스엔젤레스 사태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때에 설상가상이라더니 한인끼리 경쟁하다가 상대방 가게를 폭탄으로 폭파시킨 일이 벌어졌다.

참 창피한 일이고 뭐라 말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듣고 보는 것이 조금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심각하게 마비된 곳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언제는 마비증세가 없었던 말인가?
 남북분단으로부터 온갖 처참하고 추잡한 현상들이 비어져나오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 그 본질적인 병은 덮어두기만 하고 끝에서 결쩍거리기만 하니 근본치료가 안된다는 이 거둬되는 답답함 앞에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싶다.

대통령 후보가 멋진(?) ‘공산당 발언’을 했다가 이튿날 반복하는 것은 코미디보다 씁쓸한데 저마다 시커먼 뱃속을 이렇게 저렇게 감추고 미화하느라 분주하기만 하고 국민은 나름대로 얼른얼른 잇을 건 잇어야지 하는지 마는지...

절망할 것, 체념할 것은 일찌감치 해버리는 것이 몸보신의 길이라는 건 우리 사회의 불문율이라 치고 작고 구체적인 현장의 일은 나부터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는가?

약자지결 요란법석을 떠는 환경회의는 회의일 따름, 나는 우유곽 한 개라도 퍼말려 모아두는가 말이다.

쓰레기가 점차 줄어드는 가정이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 늘어간다는 그런 소식이 기다려지는 유월 하순에 장마는 또 얼마나 무서운 피해로 다가오고 있는지. 없는 이와 힘겨운 하루살이 인생들을 생각하며 여름밤 하루 끝이 고단해도 희망스러워졌으면 좋겠다, 정말. ☐

순정이 신책



“문규현 신부와 구속방북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지난 5년간 우리는 세계적 대격변기를 겪었다. 지금 세계는 냉전체제를 넘어 항구적인 인류평화와 공동의 번영, 통일과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남북간의 적대와 질시의 벽을 넘어 민족 모두의 염원을 담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그 큰 성과물의 하나로 우리는 지난 91년 9월 18일의 ‘남북 동시 유엔 가입’과 92년 2월 19일부터 그 효력을 발하는 ‘남북화해와 상호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세계적, 국내적 화해와 통일의 기운에도 불구하고 지난 89년 북한을 방문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순교자의 고통 중에 계신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여러 방북인사들은 전세계 최다의 양심수라는 불명예스런 기록 속에 여전히 영어의 몸으로 차가운 감옥에 구속,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지난 ‘7·4 남북 공동성명서’에서 밝힌 바인 민족통일의 3대 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과 유엔인권조약, 남북합의서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실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인 민족통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시급히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구속된 방북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민족 모두의 염원이었지만 절망적이기만 했던 민족통일을 그 선구자적 역할로 일구어낸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임수경 양, 문익환 목사 등 모든 방북·통일 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상호체제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현상황에서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의 실현을 원한다면 남북분단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온 모든 양심수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위헌적 입법기구에 의해 개정된 법률로 지금까지 독재 종식과 민주화, 통일운동에 헌신한 수많은 인사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게다가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합의서’가 발효된 현 남북관계 속에서 남북한의 적대관계가 민족 내부간에도 해소되고 전세계적인 냉전 질서도 무너진 지금, 북한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 자체도 사라졌으므로 국가보안법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합의서’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닌 법률적 효력을 갖는 국제법상의 조약임이 명백하므로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체계의 제도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정부의 통일 논의나 정책은 명백한 허구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며, 나아가 정부의 통일정책은 정권유지차원의 구실이지 결코 진정한 민족통일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내 친구들 피아노

아동의 입장에 서서 성심껏 지도하겠습니다.
음악 이론 지도 철저
평화 주공APT 옆 부채공장 내
교육상담 ☎ 85-0484
김 아 셸 라

젬마·조 오픈

여성 하이패션
인후동 성라프라자 1층 139호
최 바 울 라
☎ 76-1964

조주온 치과 의원

이전 확장 개원합니다.
(6월 15일부터)
원장 조 주 온(헬레나)
중앙 성당 맞은편(허기석내과 건물)
☎ 87-8291

한 라 스포츠

등산, 낚시, 스포츠용품
자갈 텐트 셋트 염가 판매
(현금, 신용카드 분할 판매)
송 혜 리(살로메)
관동로 전주 전신전화국 앞
☎ 84-2941

잠 간

“문규현 신부 석방 촉구 기도회”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3일부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며 9일 기도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내일(6월 22일) 교구의 전사제단과 평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규현 신부 석방 촉구 기도회’를 개최하고 석방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도 벌인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의 붕괴와 동서독이 하나된 이후 세계는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어 하나되고, 국제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없어도 될 ‘국가보안법’ 때문에 문 신부님이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실정법’ 하나만으로 문 신부님을 가둬 놓고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통일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왔다. 그 결과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했고, 지난 2월 19일에는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으며 오는 8월 15일에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위해 고난의 삶을 살아온 문규현 신부와 방북인사들은 아직도 꾀통 같은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

우리 모두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문규현 신부와 방북인사들의 석방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촉구하자.

문규현 신부 석방 촉구 기도회
 * 일시 : '92년 6월 22일 저녁8시
 * 장소 : 전주 중앙 성당(당일 성당에 주차할 수 없음)
 * 주례 : 이병호 주교,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

교 구 소 식

1. 통일 염원미사 : 6월24일(수) 오후2시-5시 임진각 광장.
 2. 교구장 본당 사목방문 : 6월23일(화) 오전10시-신대인 성당, 오후2시-연지동 성당.
 3. 축! 견진 : 6월26일(금) 오전10시 성심학교, 6월27일(토) 오후3시 인후동 성당, 6월28일 오전10시 노송 성당.
 4. 초등부 하계 연수 : 6월30일-7월2일 나바위 대건교육관.
 5. 제9차 선택 주말 : 7월17일-19일 나바위 대건교육관, 문의-교육국(85-0041).
 6. 태아생명 보호미사 : 6월22일(월) 오전10시30분 교구청 별관 1층, 행가운(85-5098).
 7.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6월26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김시문 수산나 수녀.
 8. 성모 승천 대축일 전례미사곡 교육 : 6월27일(토) 오전9시30분-오후4시 가톨릭센터 3층 강당, 강사-이종철 신부, 미사곡-이종철 신부곡, 대상-본당 성가대원·지휘자·반주자, 회비-7,000원.
- ※ 축! 명명 : 21일(성알로이시오) 이태주 신부님, 24일(성요한세자) 김봉희, 왕수해, 한기호, 김요안, 양석현, 정성만 신부님.

☉ **성소모임** 까리따스수녀회 : 6월28일 오후2시 신동 성당 수녀원 (0653)54-2636.
 동정성모회 : 수시로 성소 상담, 문의 (0652)72-5266.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정화조 청소, 물 절약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보수, 점검 및 청소를 합니다. 또 변기통 속에 빈병(물을 채워서) 등을 넣어두면 물이 절약됩니다.

<p>고급 적벽돌 생산업체 (환원벽돌, 변색벽돌, 미다시) 제1공장 : 성심연화 (0658)546-4174 제2공장 : 대진요업 (0658)546-7080 본 사 : (0653)51-0488 대표 차 계 철(베드로)</p>	<p>이리 흥익 미술학원 <92년 2학기 담임(주임)교사 구합> •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자 • 1년 이상 7세 반(취학반) 경험자 ☎ 855-8692 야간54-1279 원장 이 가 우(올리어나)</p>	<p>경동보일러 정주대리점 난방 자재 일정 도산매 유 태 수(안드레아) 이 영 순(엘리사벳) ☎ (0681)537-5800</p>	<p>효소의 명품 보사허 제 99호, 품목허 제99-1 팔보종합야채효소 건강을 가꾸어드립니다 전북지사 ☎ (0652)74-1161 금암동 로타리 KBS 중간 손석중(안셀모), 김제월(안젤라)</p>
--	--	---	--

요십이 (985) 김병오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
 일시 : 6월28일 오후2시-5시 (매월 마지막 주일)
 장소 : 삼랑진 본원 ☎ 52-4241

피아노
 아름다운 음악은 정확한 조율에서 창출된다. 피아노의 긴 수명은 정기적인 조율에서 비롯된다. 조율상담 김 지 나(세실리아) ☎ 82-9002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또
 ☎ 84-2628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정성껏 성체를 받아 모
십시오.

1. "축" 첫 영성체: 26명 어린이에게 축하드립니다.
2. 견진교리: 23~22일 오전9시30분 오후8시
3. 견진성사: 28일 10시 집전: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님
(견진자와 대부분은 30분전까지 집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진자고해성사: 25~26일 오전교리 후, 미사 전후 학생 - 27일
어린이미사 후
5. 성탄반 예비자 모집: 신자분들의 예비자 발굴과 적극적인 인도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849,810원 □ 교무금: 713,000원
6. 문규현신부석방축구 기도회: 22일 오후8시 장소-중앙성당
7. 모임: 25일 ①빈첸시오회: 오전9시30분 ②제대회: 오전10시30분
8. 금주성령침소: 중노27,인후1반 차주성령침소: 인후2,인후3반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병자 봉성체: 26일,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2. 유아세례: 27일 오후7시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3. 입명: 교황주일 2차헌금: 28일
 4. 해설자 모임: 오늘 공석미사 후
 5. 성우회: 오늘 공석미사 후
 6. 제대회: 25일 오전10:30분
 7. 빈첸시오회: 27일 오전10시
금주전례: 유복규 독서-황선주씨 부부
봉헌-조백환씨 가족
차주전례: 유두석 독서-박중호씨 부부
봉헌-정동민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25,530원 □ 교무금: 818,7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옥

- ※ 오늘은 성체와 성혈 대축일입니다.
1. 예수성심대축일: 26일(금), 저녁8시 미사. 2. 문규현 신부님
석방 축구 기도회: 22일(월) 저녁8시, 중앙성당. 3. 청년회: 공
석미사 후 4. 성가정: 23일(화) 저녁미사 후 5. 성모회: 다음주
공석미사 후 6. 성가대월례회, 울드레야: 26일(금) 저녁미사 후
7. 탈상: 진월명(요한) - 25일(목) 9:30미사 8. 성서읽기: 붓
기1장~4장 9. 금주침소: 바다의 별 Pr 10. 금주전례: 해설-
여정진 독서①김봉걸 ②오귀남 봉헌-안정만, 박순귀씨 부부 차
주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남현준 ②최영숙 봉헌-유순천, 유
춘근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68,390원 □ 교무금: 350,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그리스도성체와 성혈대축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1. 회의: ①성모회-오늘 공석미사 후(다음주일은 교황주일 2차헌
금있음)
 2. 알림: ①전례부-6월25일(목) 오후8시 3. 알림: ①봉성체-6
월24일(수) ②문규현신부님석방축구기도회-6월22일(월) 오후
8시, 중앙성당. 신자들의 많은 참여 기도 바랍니다.(그리고 전신자
들의 성명바람) ③교무금-신자의 의무금인 교무금을 지급까지
전혀 방편하지 않은 분들은 다른곳에 좀 연락하시고 정성껏 봉헌
해주시기 바랍니다 ④본당신부님영명축일-6월28일(일) 신자들
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4. 감사: 견진성사준비에 협조해주신분들과 성심회입원될수고 많
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803,600원 □ 교무금: 665,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그리스도 성체와 성혈 대축일
※ 성세안에 하나되어-용서하는 한 주간 됩니다.
1. 문규현 신부님 석방 축구 기도회: 6.22(월) 오후8시(중앙성당
-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성가로 하느님을 찬미합니다(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3. 청소년봉사: 4구역 1반, 2반
- 지난주 봉헌금: 605,100원 □ 교무금: 1,047,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대축일

1. 금주: ①바녀의 성모Cu(후2시) ②조당자 합동헌인식(후2시)
③청년연합회 대청소(후4시) 월례회(저녁미사 후)
 2. 중·고 캠프캅습: 이문-6월20일(토) 오후1시 가톨릭센터
실기-6월26일~28일 나바위대건교육관.
 3. 성화회: 22일(월) 오후6시
 4. 문규현 신부님 석방 축구 기도회: 22일(월) 오후8시 중앙성당
 5. 교무금 납부주일(월남 후8시, 인도자와 함께 참석 바랍니다)
 6. 차주: 성마리아 꼬미시움(후2시)
- 지난주 봉헌금: 1,994,620원 □ 교무금: 1,484,5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원 규

1. 예수 성심의 밤: 26일 후7시30분 성심께 드리는 글 준비
 2. 축! 첫 영성체: 주님을 모신 어린이에게 축하드립니다.
 3. 예비자 입교식: 23일 후8시, 인도자와 함께 참석 바랍니다.
 4. 예루살렘회(세례자) 첫 고백: 23일 후7시30분 대부분 협조.
 5. 환자 봉성체: 25일 전9시, 환자를 모신 가정은 접수 바람.
 6. 중·고 교사 하계연수: 26일~28일 나바위 교육관
 7. 입진각 통일염원 미사: 24일 전8시출발, 오늘까지 접수
 8. 다음주일은 교황주일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봉헌 바랍니다.
 9. 교무금 봉헌주일: 21일 신자의 의무를 다합니다.
 10. 전통성당 신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신축헌금-이백만원 봉헌
 11. 회의: 청년회-오늘 후8시, 빈첸시오회-27일 전10시30분, 성가
대-24일 전11시(미사 전5시30분), 울드레야-28일
- 지난주 봉헌금: 928,230원 □ 교무금: 802,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범 기

1. 자모회: 오늘 미사 후
2. 현월: 오늘 미사 후(많은 참여있기를 바랍니다)
3. 반모임: 23일(화) 오전-성원, 오후-운남, 저녁-삼정1,3, 24일
(수) 오전-화산1, 오후-신일
4. 첫 영성체: 27일(토) 어린이 미사 후
5. 청년회 정기총회: 다음주일 미사 후
6. 문규현 신부님 석방 축구 기도회: 22일(월) 오후8시 중앙성당.
금주전례: 정 결 독서·봉헌-권미숙, 구양수
차주전례: 최경순 독서·봉헌-이순애, 이근기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희
사목회장이 동 섭

- ※ 그리스도 성체와 성혈 대축일
1. 꾸리아: 24일(수) 오전10시
 2. 꼬미시움: 27일(토) 오후3시
 3. 김효근(아고버) 부제님 첫 미사: 26일(금) 11시 폰넨딸알 성모
만치스코회 10시 어머니 미사없음
금주: 칼벨의 모후, 죄인의 피난처
차주: 순교자의 모후, 성마리아
- 지난주 봉헌금: 1,233,010원 □ 교무금: 1,268,000원

*** 효자대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상전 건축위원 피정,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30대남자모임 창립, 30대 남자모임을 창립코저하니 한분도 빠
짐없이 참석바람.
 3. 모임안내: ①세벽회: 오늘저녁7시
②26(금)반기도회 준비모임(반회장 및 총무)
③사목회: 다음주
 4. 전례부원모집: 본당 전례의 활성화를 위해 해설자 및 전례에
봉사하실 분(특히, 여성분 환영)
 5. 가정방문: 25(목) 오후2시 광진진주1반, 26(금) 오후2시 광진
진주2반
차주모임-반석회, 교황주일(2차헌금)
차주전례: 해설-점이룡 독서①김수일 ②정영숙
미사, 봉헌, 안내-김삼섭부부, 김용신부부
- 지난주 봉헌금: 1,109,280원 □ 교무금: 1,602,000원